

광주 '대형 유통업 밀도' 전국 최고

백화점·대형마트 16개... 점포당 인구 8만8,000명 소상공인·재래시장 생존 위협...입점제한 강화해야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 과밀화가 인구 대비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면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조례를 통해 일정 규모이상의 유통업체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준주거지역 한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와 유통업체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서 매장면적 3천㎡이상이면 준주거지역에 입점할 수 있는 유통업체는 백화점 5곳과 대형마트 11곳 등 16개소에

달한다.

이로인해 광주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 점포당 인구수가 8만8천여명으로 타 광역시인 부산 11만4천명, 대전 11만2천명, 울산 9만2천명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만큼 소비자에게는 쇼핑 기회가 많지만 길거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봉선점과 삼성 홈플러스 하남2지구, 계림동 필하마마트 등 3개소가 이미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개점작업에 들어갔고 홈플러스, 수완지구 롯데마트 등 6~7개소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3천㎡이상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한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준주거지역에 한정돼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16개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준주거지역에 입점한 곳은 이마트 동광점 1곳에 불과해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에 입점을 추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점도 대형 유통업체 난립을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 3개소가 이미 인·허가 구청장치고 개점작업에 들어갔고 홈플러스, 수완지구 롯데마트 등 6~7개소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통업체의 입점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모 구청이 광주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제동을 건 대형마트에 대해 입점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입점제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 조례 적용대상을 준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등으로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대학의 마케팅 전공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소상공인 피해보상 성격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과 사업장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담 등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추경교장관 밝혀-"9월이전 현장조사후 결정"

이르면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지금보다 다소 높은 6% 안팎의 이윤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이윤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방향과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늘고 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지정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업계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국가 전체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에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투기우려가 없는 경우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전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6% 안팎의 이윤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2~2005년 전 산업 평균영업 이익률은 6.2%이며,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6.6%로 집계돼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방중소 건설업체 지원 방안으로 지방중소 건설업체가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 비율을 보장하고, 시공요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2~2005년 전 산업 평균영업 이익률은 6.2%이며,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6.6%로 집계돼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방중소 건설업체 지원 방안으로 지방중소 건설업체가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 비율을 보장하고, 시공요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부가가치 업종 육성

중기 사업전환 지원 추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중소기업들에게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과 사양산업으로부터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업전환승인 기업의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용자자금을 업체당 최고 30억원을 지원한다. 문의(062-360-9113) /이종태기자 jilee@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합시다

광주세무서(서장 김동권) 직원들이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이날 관내 14개 세무서 457명의 직원들을 동원, 광주·전남 78개 지역에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등 내용의 리플렛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세무서 제공>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

이달 29일 종의공원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9일 광주비엔날레 종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롯데 어린이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환경부와 환경재단 후원으로 롯데백화점 전국 23개 전 점포에서 진행되는 유통업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미술대회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오는 22일까지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안내데스크 및 7층 멤버스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호, 대우빌딩 매각 추진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우센터빌딩 매각을 추진한다.

대우센터빌딩 매각은 대우건설이 캄보디아에 있을 때부터 진행됐으나 지난해말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중단됐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초 내년말 완공 목표인 그룹 제2 사옥이 건립되는 시점에 맞춰 대우센터빌딩의 매각

추진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최근 대우센터빌딩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매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매각 추진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나 JP모건은 주간사로서 선정되고 입찰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말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매각에 따른 장점으로 "주식수가 많아 저평가된

JP모건 주간사 선정 빠르면 8월말 완료

대우건설의 주식가치를 이의 소각이나 감자를 통해 줄여줌으로써 주식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호아시아나는 실리추구면에서도 그룹 제2사옥 신축으로 대우센터빌딩의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등 대우센터빌딩을 보유하여 얻는 효용가치보다 매각 후 확보된 유동성을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4,855대1 '송도 로도텔' 청약

광주·전남 5명 당첨됐다

'로도텔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인천 송도의 코오롱 오피스텔 청약자 발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8천여명이 청약해 5명이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코오롱건설이 발표한 송도 오피스텔 청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3명의 청약자 가운데 광주·전남 거주자가 5명 포함되는 등 모두 16명의 지방 거주자가 당첨됐다. 이는 전체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청약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투자수요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거주자가 전체의 33.3%(41명)를 차지해 당첨자 비중

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31.7%(39명) ▲서울 22%(27명) ▲충남 3.3%(4명) ▲전남 2.4%(3명) ▲광주 1.6%(2명) ▲전북 1.6%(2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31~40세(33.3%) ▲51~60세(18.7%) ▲20~30대(7.3%) ▲60세 이상(3.3%) 등이었다.

한편 이날 청약자 발표 직후 송도 일대 중개업소에는 전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으며, 5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매물이 공인중개업소에 나오는 등 '로도텔'에 대한 우려가 현

지역별 당첨자수·청약건수

지역	당첨자수	청약건수
경원	1	3,539
경기	39	82,300
경북	1	4,936
광주	2	3,508
대전	2	3,592
서울	27	93,781
인천	41	70,704
전남	3	4,498
전북	2	5,041
충남	4	4,982
충북	1	3,042
계	123	294,458

실화되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조사 결과 현재 매도호가 30평형대를 기준으로 7천만원, 70평형 이상 대형평형은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고객 무한봉사'

변화·혁신 친절교육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10~11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전 영업점과 지역본부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친절교육 및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에 대한 무한봉사 자세를 다짐했다.

CRM시스템은 고객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영업점 직원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영업성공 사례를 만드는 변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고객감동영업'의 일환이다.

농협광주지역본부는 "2007년을 고객만족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고객감동 실천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품질은 100% 가격은 30%

◆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 적용범위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뱃(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자동차 및 물류 배송센터 ▶

➔기대효과

- 배터리 교체비용의 2/3 이상의 원가 절감
- 사용중인 배터리에 적용시 2배 이상의 수명연장
- 개선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악성 폐기물 배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차고, 백화점등 전동장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핏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 주요 실적 ◆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의 108개 업체 현장투입 가동중

b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충남·모집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

새로 발명한 발목펌프 운동봉

하루 30분 운동으로 10,000보 걷는 효과

운동효과

발목 펌프 운동이란, 혈액 순환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비만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은 발목까지 내려가면 원이 쇠진해진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새로 개발한 운동봉위에 다리를 들었다 떨어뜨리는 운동으로써 발목 근육에 자극을 가하여 온몸의 혈액순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주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치료 되면서 혈액순환 개선과 특히 하체 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발명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7cm 길이 31cm 원통목재와 직경 6.4cm PPC원통 길이 31cm의 각각 양쪽 가장자리에 직경 5cm 스프링 2개를 장착하여 소용돌이를 완전 해소 시켰으므로 APT에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스프링의 완충작용으로 인하여 발목근육의 통증을 원아시킴으로서 발목이 전혀 아프지 않음으로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한 것 등이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의 특징이다. 종전의 각종 통나무, 대목, PVC등 원통형 운동봉은 소용돌이 때문에 APT에서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하였으며, 재질이 딱딱하여 발목이 아파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였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30분)=10,000보 걷는 효과

운동 방법

1. 누워서 운동봉(아래 수건을 깔것)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20~30cm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 좌, 우 교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처음에 하루에 500회, 1,000회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하여도 발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의문사항에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125-121-002455, 농협601154-52-335334 예금주 : 서영섭

상담전화 TEL.062)672-2002, H·P. 011-609-0450